

여기서
있었던 일 →

『어느 날, 남구에서』

토요일 오후 세 시간
참가비 0원
오시는 날마다 선물

글 · 그림 · 목소리로 남기는 내 기억 한 장

오시는 날마다 받는 선물

10.24 글 새 책 한 권

10.31 그림 내 그림으로 만든 굿즈
필통·손거울·엽서·떡메모지 중 택1

11.7 목소리 진지한책방 에코백

11.14 낭독회 엽서 10장 + 연필 세트

하루만 와도 받습니다 · 회차당 8명

남구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

참여하는 날 책방에 오시면 됩니다.
그날 책방에서 보낸 오후가
남구에서의 기억이 됩니다.

남구 주민 우선 · 누구나 신청 가능

1회차 · 글

10월 24일 토요일 · 오후 4~7시

글을 써본 적 없어도 세 시간이면 한 편

지도에 붙인 한 문장을 첫 문장 삼아
기억 한 장면을 씁니다.

이날의 선물

『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』

남해의봄날 · 같은 가격의 다른 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(행사 전 협의)

오늘 그린 그림이 내 필통이 됩니다

펜과 연필로 기억 속 한 장면을 그립니다.

잘 그린 그림보다 내 기억을 닮은 그림이면 됩니다.

이날의 선물

내 그림으로 만든 굿즈 한 점

양철필통·손거울·엽서·떡메모지 중 택1 · 11월 14일 수령
그날 그린 그림으로 만들어 이날 오신 분만 받습니다

4회차 · 낭독과 전시

11월 14일 토요일 · 오후 4~7시

책방 벽에 내 글과 그림이 걸립니다

지난 세 주의 글과 그림을 걸고 낭독회를 엽니다.
처음 오신 분도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이날의 선물

엽서 10장 + 연필 세트

10월 31일에 만든 그림 굿즈도 이날 받습니다

짧은 글 한 편, 내 목소리로 녹음

짧은 글이나 시를 짓고, 짝에게 두 번 읽어 준 뒤
녹음합니다. 녹음과 영상은 원하는 분만 합니다.

이날의 선물

진지한책방 에코백

원하시면 내 낭독 영상을 책방 유튜브에 남겨 드립니다

프로필 링크에서 네이버폼으로 신청

일정 10.24 · 10.31 · 11.7 · 11.14 (토) 오후 4~7시

정원 회차당 8명 이내, 선착순 · 원하는 날만 고르기

마감 각 회차 전날까지 · 자리가 남으면 당일 참여

비용 무료 (참가비·재료비 남구문화재단 지원)

장소 진지한책방
남구 분포로 61 빌리브센트로 B동 224호

수록에 동의하신 글·그림은
소책자 『어느 날, 남구에서』로 묶어 1부 드립니다.